

三國時代 慶南地域 古墳出土 金屬製 팔찌의 性格*

申 恩 熹

Shin, Eunhee
동아대학교박물관

I. 머리말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 장신구는 그 형태적인 면이나 내면적인 의미에서 당시의 사회와 문화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 결부되어서는 피장자의 신분을 나타내면서 당시 사회의 계층적 분화와 사회상을 구현하는 유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장신구는 그 제작에 있어서 한정된 재질과 특수공인 집단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도 한정된 계층에 한하여 확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러한 장신구의 제작은 토기 등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사회적 또는 중심과 주변의 관계속에서 교환되거나 증여 또는 하사, 헌납, 봉헌과 같은 형태로 확산·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제 팔찌의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금속제 팔찌를 통하여 경주와 그 주변의 경남지역 간의 정치적·문화적 현상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행해진 팔찌에 관한 연구³⁴⁾의 문제점은 첫째, 속성을 파악하지

* 본 연구는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의 2005년도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34) ① 李仁淑, 「古新羅 裝身具에 對한 一考察」 『歷史學報』第62號, 1974

팔찌에 대한 型式分類를 시도하여 고신라의 중요 고분양식인 적석목곽분의 편년에 근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② 金海純, 『韓國 팔찌에 關한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9

金亨禎, 『銀製팔찌 디자인에 關한 研究』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공예사적인 입장에서 그 제작기법을 살피고 현대의 팔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③ 朴熙明, 『三國時代 팔찌에 對한 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1

삼국시대의 팔찌를 문양과 제작기법에 따라 형식분류하고 이를 통하여 팔찌의 형식변화와 재료, 제작기법과의 연관관계, 그리고 출토된 고분의 시기와 팔찌의 형식적 변화와의

않고, 단지 표면문양에 의한 분류로 형식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라와 가야의 구별이 모호한 채 형식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주지역 출토품만을 신라의 장신구로 인식하고, 신라의 지방에서 출토되는 장신구는 가야의 장신구로 이해한 다음 형식분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셋째, 금속공예의 전체적인 흐름 중 한 부분으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 금관이나 이식, 파대 등의 다른 장신구에 비해 고고학적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冠, 耳飾, 鈿帶 등의 금속제 장신구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성과³⁵⁾를 바탕으로 상기한 팔찌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연구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삼국이 정립해서 성장해 나가는 시기인 4세기에서 6세기대이며, 지역은 낙동강 동안과 서안에 해당하는 경남지역이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분화의 파악과 비교를 위해서 연구대상으로 정한 지역 이외에 동시기의 신라지역과 백제지역에 대한 장신구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의 중심대상인 경남지역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과 그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장신구의 부장양상과 성격의 상이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곧 신라와 가야의 정치적·문화적 현상을 밝히는데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관계를 살펴 팔찌의 시대적 변화양상과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 ④ 김원룡, 이은창, 황호선, 윤세영, 유희경, 김문자 등에 의해 冠, 頸飾, 耳飾, 鈿帶, 飾履 등과 함께 장신구를 일부 다룬 논문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잘 알려진 몇몇 유물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

³⁵⁾ 李仁淑, 『신라와 가야의 裝身具』 『韓國古代史論叢』3, 韓國古代史研究所 編, 1992

崔秉鉉,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上)-墓型和 그 성격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31, 1980

金龍星, 『慶山·大邱地域 三國時代 古墳의 階層化와 地域集團』 『嶺南考古學』6, 1989

李漢祥, 『5~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裝身具 分析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1994

_____, 『古墳資料로 본 4~5世紀代 慶州와 周邊地域』 『國家形成期 慶州와 周邊地域』, 第25回 韓國上古史學會 學術發表大會

朴普鉉, 『威勢品으로 본 古新羅社會의 構造』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김기웅, 『신라와 가야의 문화교류-고분출토의 장신구류를 중심으로』,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 논문집9, 1988

崔鍾圭,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7, 1982

II. 三國時代 金屬製 팔찌의 出土現況

삼국시대의 고분의 부장품에는 토기류, 이기류, 장신구류, 마구류 등이 있다. 이 중 장신구류의 부장은 피장자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함은 물론 시대적·지역적 특징을 보여주는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고분에 부장되는 장신구류는 대부분 피장자의 몸에 실제 착용한 상태로 매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고대의 사후개념과 장의제도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되어진다.³⁶⁾

우리나라에서 장신구에 대한 문헌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로 고대중국의 문헌, 《日本書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의 기록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람들이 金·銀·金銅·銅·玉類로 裝身하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신라의 장신구의 경우, 대형고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시행된 일제강점기에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에서 간행된 조선고적조사보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선고적도보 등 일제강점기의 보고서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 팔찌는 그 명칭이 釧, 腕釧, 腕輪, 腕飾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名稱이 사용되어진 것은 形態的·用度的 차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일본학자들에 의한 單語의 混用이라고 보여진다.³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팔찌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III. 팔찌의 屬性에 따른 檢討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장신구의 연구가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이는 우선 팔찌 자체의 기초적인 검토, 즉 재질 및 형태, 제작기법, 문양을 바탕으로 한 속성의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팔찌의 속성을 분류하고 변천양상

³⁶⁾ 李仁淑, 앞의 논문, 1974

³⁷⁾ 大塚初重, 『日本考古學辭典』, 1996 에 의하면, 腕輪(うでわ, bracelet) : 손목 또는 팔목에 장식하는 링 모양의 장신구로, 貝·石·青銅·鐵·木 등을 素材로 만들었다. 또한 小玉을 연결하여 손목과 팔목에 착용한 경우도 있다. 팔찌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貝製腕輪(조개팔찌)는 조몽시대이래 사용되어졌다. 遺體에 着裝되어 埋葬된 경우가 많다. 팔찌(くしろ, bracelet): 貝釧, 腕輪으로 설명되어져 있어 팔찌와 腕輪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KCS I

1. 屬性의 分類

가. 材質

팔찌는 재질에 따라 금제-은제-청동제-기타(금동제, 금은제, 도금은제, 은동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같은 재질별 출토 예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材質別 出土 例

K C I

材 質		出 土 例
金 製	高句麗	
	百濟	武寧王陵
	慶州	皇南大塚 北墳, 金鈴塚, 瑞鳳冢, 慶州皇吾里52號墳・5號墳, 慶州路西里215番地・第12號墳, 金冠塚, 天馬冢, 壺杆塚
	慶南	梁山夫婦塚, 梁山金鳥塚, 陝川玉田M2號墳, 昌寧校洞第7號墳
銀 製	高句麗	龍岡郡後山里내동 第4號墳, 추동 第9號墳, 平南順川市龍岳洞, 黃北鳳山郡天德洞, 黃北隣山郡平和洞
	百濟	公州燒鶴洞보통골古墳 第17號墳, 公州熊津洞 第8號墳, 武寧王陵, 公州宋山里 8號墳・收拾品
	慶州	金鈴塚, 飾履塚, 皇南洞味鄒王陵前地域C地區 第3號墳, 瑞鳳冢, 慶州皇吾里 第16號墳1槨・第54號墳甲塚・第52號墳, 慶州普門里古墳, 慶州普門洞夫婦塚, 慶州路西里215番地, 金冠塚, 天馬冢, 銀鈴塚
	慶南	晉州中安洞, 咸陽白川里5號墓, 昌寧校洞 第7號墳・第11號墳, 梁山夫婦塚, 昌寧桂城 II地區1號墳・桂城洞古墳 A地區 第1號墳, 星州星山洞58號墳
青銅製	高句麗	晚達山麓 第15號墳, 江原道高城郡봉화리 第1號墳, 深貴里第75號墳, 魯南리남좌동 第133號墳, 大聖山植物園區域 第4號墳
	百濟	羅州潘南面 德山里第4號墳・新村里第9號墳(庚棺)・新村里第9號墳(乙棺)・大安里第9號墳(庚棺)
	慶州	慶州月城路 가-14號墳
	慶南	固城內山里古墳群, 固城松鶴洞1A-4號墳・1A-9號墳・1A-11號墳, 固城栗垜里2號墳, 陝川玉田28號墳, 陝川鳳溪里古墳群, 昌原加音丁洞3號墳, 昌寧校洞第7號墳
기타	金銅製	慶山林堂7A號墳, 慶州皇吾里 第33號墳・第5號墳, 慶州普門里古墳,
	金銀製	武寧王陵, 陝川玉田82號
	鍍金 銀製	慶州路西里 第138號墳, 慶州普門洞夫婦塚
	銀銅製	慶州皇吾里 第4號墳

금제팔찌는 고구려지역에서는 한 점도 발견되지 않는 반면, 경주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동제팔찌는 고구려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다수 확인되는데 반해, 경주지역에서는 월성로 가-14호분에서 유일하게 1점이 확인된다. 이것은 팔찌의 재질이 지역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성이 단순한 지역성의 반영인지 아니면 시간성과의 관련속에서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나. 製作技法

다음은 제작기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삼국시대에 출토되는 고분 금속공예품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공기술이 발휘되어 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팔찌제작에 사용된 기법에 관한 기록은 현재 알려진 바가 없어서, 오직 현존하는 작품들을 통해서만 팔찌의 제작기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작기법의 연구도 조사의 어려움과 한계성 그리고 제반제약에 의해 과학적 검토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주로 육안관찰에 의존하여 팔찌의 제작기법³⁸⁾ 검토를 행하였다. 육안에 의해 관찰되는 팔찌의 제작기법은 형태를 만드는 성형기법과 표면을 장식하는 표면장식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형태를 만드는 成形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제작기법으로 금속재료를 녹여 틀에 부어 형을 만드는 鑄造기법³⁹⁾과 금속선이나 금속봉을 이용하여 열을 가한 상태에서 망치로 두드리며 늘려 형태를 만드는 鍛造기법⁴⁰⁾이 있다.

38) 李蘭暎,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진크스 맥그레이스(역:최승욱), 『장신구 제작기법』, 예경, 2001

南宮永任, 『韓國 古新羅 金屬製 裝身具의 製作技法 研究-再現技法을 中心으로-』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2002

엄준상, 『금속공예』, 미진사, 1989

39) 熔融된 금속을 가지고 작업단계를 거쳐 장신구를 만드는데, 금속을 용해시켜 틀에 부어 형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鑄造技法이라고 한다. 주물 틀의 제작, 금속의 용해와 주물받기, 마무리의 3단계의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40) 장신구에 사용할 금속을 熔融시켜 망치 등으로 금속을 두드리며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얻어진 금속판을 자르거나 휘기, 접기, 또는 땀으로 접합시켜 원하는 형을 만드는 작업을 鍛造技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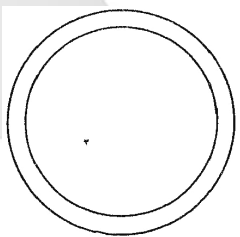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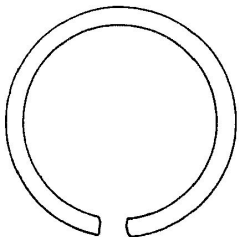

<표 2> 製作技法 分類

鑄造 팔찌	鍛造 팔찌
황오리33호분석곽, 금관총, 금령총, 보문리고분, 황오리52호분·5호분, 노서리215번지, 서봉총, 보문리부부총	일성로가-14호분, 황남대총북분, 미추왕릉진지역C지구, 황오리4호분, 노서리138호분, 호우총, 금령총, 황오리16호분, 천마총, 황오리5호분, 진주중앙동, 성주성산동58호분, 옥전28호분·M2호분, 양산부부총·금조총, 고성내산리8호분3곽·34호분1곽·1호분3곽·21호분11곽·28호분1곽, 고성송학동1A-4·1A-9·1A-11, 창녕계성Ⅱ지구1호, 고성율대리2호분

다. 形態

팔찌의 기본적인 형태는 環形이며, 양끝의 접합유무에 따라 완전한 圓形인 것(I형)과 양끝이 떨어진 缺圓形(II형), 그리고 무령왕릉 頸飾과 같은 형태의 連結形(III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표 3>

<표 3> 形態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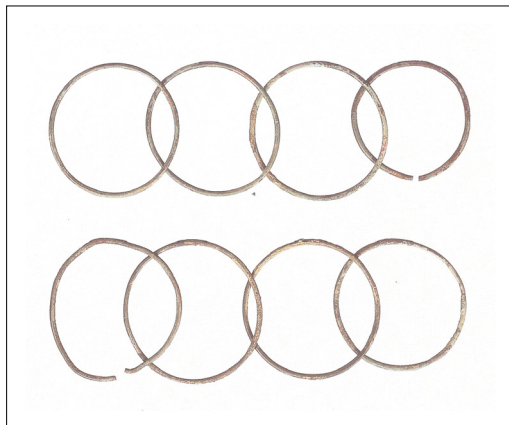
I형(圓形)	II형(缺圓形)	III형(連結形)
		

<표 4> 形態別 出土 例

形態	出土 例	
I形 (圓形)	高句麗	江原道高城郡봉화리 第1號墳, 晚達山麓 第15號墳, 平南順川市龍岳洞, 黃北鳳山郡天德洞, 黃北隣山郡平和洞
	百濟	羅州潘南面 德山里第4號墳·新村里第9號墳(庚棺)·新村里第9號墳(乙棺)·大安里第9號墳(庚棺), 武寧王陵,
	慶州	皇南大塚 北墳, 慶山林堂7A墓, 慶州路西里215番地, 金冠塚, 瑞鳳冢, 皇吾里16號墳 第1槨, 普門里夫婦塚
	慶南	晉州中安洞, 陝川玉田28號墳, 陝川玉田M2號墳, 梁山夫婦塚, 梁山金鳥塚, 咸陽白川里5號墓, 固城內山里8號墳3槨·21號墳1槨, 昌寧桂城 Ⅱ地區1號石室, 昌原加音丁洞3

		號墳,
Ⅱ形 (缺圓形)	高句麗	深貴里第75號墳, 大聖山植物園區域 第4號墳, 龍岡郡後山里내동 第4號墳, 추동 第9號墳, 黃北鳳山郡天德洞
	百濟	武寧王陵, 公州巢鶴洞보통골古墳 第17號墳, 公州熊津洞 第8號墳,
	慶州	皇南大塚 北墳, 皇南洞味鄒王陵前地域C地區 第3號墳, 慶州皇吾里 5號墳, 慶州月城路 가-14號墳, 金冠塚, 壺衿塚, 金鈴塚, 慶州普門里古墳, 慶州皇吾里 第33號墳西槨, 慶州路西里138號墳, 天馬冢
	慶南	晉州中安洞, 星州星山洞58號, 固城內山里34號墳1槨·1號墳3槨·28號墳1槨, 固城栗垵里2號墳3號, 昌寧桂城Ⅲ1號墳 1號
Ⅲ形 (連結形)	高句麗	
	百濟	武寧王陵, 公州宋山里 收拾品
	慶州	
	慶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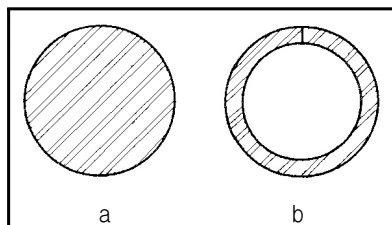
여기서 <표 4>를 보면 I 형과 II 형은 고구려, 백제, 경주, 경남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III 형은 무령왕릉과 송산리 수습품이 있는데, 이는 무령왕릉의 경식을 축소해 놓은 형식으로 공주지역의 특징적인 형식으로 생각된다. 즉, I 형과 II 형은 청동기시대의 가장 오래된 금속제팔찌인 영천 어은동 유적 출토품에서 이미 두 형태가 함께 출토되고 있어 시기적인 차이도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圖版 1>



圖版1. <青銅製팔찌>三韓時代, 紀元前後, 慶北 永川 漁隱洞 遺蹟出土,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다시, I 형과 II 형은 단면형태에 따라 a형과 b형의 두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표 5> 팔찌의 斷面



a형(中實)은 기본적으로 속이 찬 금속봉이나 금속선을 원형으로 구부려 만든 것이고, b형(中空)은 얇게 만든 금속판을 파이프형으로 둥글게 말고 이것을 다시 구부려 만든 것이다.

단면 형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으로 변화한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보았으나, 그러한 용도적인 면보다는 <표 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경남의 팔찌는 모두 a형만이 나타나는데 반해 b형은 경주지역의 황남대총북분, 금관총, 금령총 등에서 a형과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성을 띠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 表面紋樣

문양은 당시 사람들의 관념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생각되므로 매우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이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양을 가진 팔찌가 각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각 지역에서 보이는 팔찌의 표면에 표현된 동일한 문양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표면문양에 대한 형식분류는 이미 다른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었다.⁴¹⁾

팔찌는 기존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검토함으로써 문양에 대한 분류를 제시도 해 보고자 한다.<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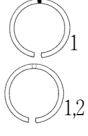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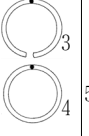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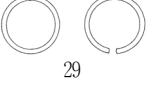




41) 李仁淑, 앞의 논문

금속계 팔찌를 ①표면에 문양이 없는 것, ②표면에 톱니모양의 蛇腹文을 가한 것, ③표면에 작은 형의 突起를 붙인 것 등 3종류로 구분하고 이들 형식이 ①~③으로 變化發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이인숙의 연구 이후 팔찌가 장신구의 일부로서 다루어진 점은 주목되지만 문양의 분류에서는 극히 알려진 일부 유물만이 다루어졌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朴熙明, 앞의 논문

여기서 氏는 팔찌의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팔찌의 제속성에 대한 검토없이 세부적인 형태분류를 통해 복잡한 型式이 설정되었고, 각 고분의 연대에 대한 검토없이 형식을 시간적으로 나열하여 팔찌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있다.

<표 6> 形態・斷面의 時期別・地域別 變遷過程

時期 地域	I 期	II 期	III 期	IV 期	비 고
	4C 中半 ~5C 初	5C 前半 ~中半	5C 後半~6C 前半	6C 中半 ~	
경주	 1 1,2	 3 4	 5,6,8,10,12,13  9,11  7,14  7,8,12		1.월성로 가-14호분 2.황남대총북분 3.미추왕릉C지구 4.서봉총
경산		 15			5.천마총 6.노서리 제138호분 7.금관총 8.금령총
성주		 17			9.황오리 제4호분 10.황오리 제33호 서곽 11.황오리 16호분 1곽 12.황오리 제5호분
	창녕		 18	 30	13.보문리고분 14.호우총 15.경산 임당7A묘 16.합천 옥전28호분
양산			 27,28		17.성주성산동 58호분 18.창녕계성II 지구 1호분 19.합천옥전M2호분
경남 지역	합천		 16,19		20.고성읍대리2호분 21.창원가음정동3호 22.고성내산리 8호분3곽
	진주		 29		23.고성내산리 34호분1곽 24.고성내산리 1호분3곽
함양			 31		25.고성내산리 21호분11곽 26.고성내산리 28호분1곽
고성			 20,23,24,26  22,25		27.양산부부총 28.양산금조총 29.진주중앙동 30.창녕계성III 지구 1호분
창원			 21		31.함양백천리5호묘

<표 7> 紋樣 分類

A형 (소문)	B형 (새김문)	C형 (툽날문)	D형 (돌기문)	E형 (용문)				
			<table border="1"> <tr> <td>a</td> <td></td> </tr> <tr> <td>b</td> <td></td> </tr> </table>	a		b		
a								
b								

문양의 분류에서는 문양의 단순한 형태적 분류가 아닌 문양의 새김기법에 따라 삼국시대 출토 팔찌의 문양을 5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여기서 문양의 명칭은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은 것은 A형(소문)으로, 뾰족한 정 등을 이용하여 음각선을 넣은 것은 B형(새김문)으로, 간격과 뾰족함·등근 정도에 관계없이 V자상의 홈이 파진 것을 C형(툽날문)으로 하였다. 그리고 D형은 돌기문으로 돌기에 玉 嵌入유무에 따라 a形과 b形으로, E형은 용문만 양각된 것, 용문이 양각되고 돌기가 장식된 것, 용문이 양각되고 상하단에 음각선 처리된 것으로 나누어지나 수량이 적은 관계로 모두 E형에 포함시켰다.

<표 8> 表面紋樣別 出土 例

文 樣	出 土 例	
A形 (소문)	高句麗	深貴里第75號墳, 大聖山植物園區域 第4號墳, 龍岡郡後山里 추동 第9號墳·내동 第4號墳, 平南順川市龍岳洞, 黃北隣山郡平和洞
	百濟	羅州潘南面 新村里第9號墳(庚棺), 新村里第9號墳(乙棺), 大安里第9號墳(庚棺), 公州巢鶴洞보통골古墳 第17號墳, 公州熊津洞 第8號墳
	慶州	慶州月城路 가-14號墳, 慶山林堂7A墓, 皇南大塚 北墳, 味鄒王陵前地域C地區 第3號墳, 皇吾里 第16號墳1槨, 皇吾里 5號墳
	慶南	星州星山洞58號, 咸陽白川里5號墓, 固城松鶴洞 1A-9號·1A-11號, 昌寧桂城 II地區1號石室, 昌原加音丁洞3號墳
B形 (새김문)	高句麗	
	百濟	羅州潘南面 德山里第4號墳, 大安里第9號墳(庚棺)
	慶州	金鈴塚, 瑞鳳塚

	慶南	梁山夫婦塚, 固城內山里 21號墳11槨	
C形 (툽날문)	高句麗		
	百濟	新村里第9號墳(庚棺), 武寧王陵,	
	慶州	皇吾里 第33號墳西槨, 慶州路西里 第138號墳, 銀鈴塚, 金冠塚, 壺杆塚, 慶州普門里古墳, 皇吾里 5號墳, 普門里夫婦塚	
	慶南	晉州中安洞, 陝川玉田28號墳·M2號墳, 固城內山里 8號墳3槨·34號墳1槨, 固城松鶴洞 第1A-4號, 昌寧桂城 II地區1號石室, 陝川鳳溪里古墳群, 固城栗垈里2號墳, 昌寧校洞 第7號墳·11號墳·12號墳	
D形 (돌기문)	a	高句麗	江原道高城郡봉화리第1號墳, 晚達山麓第15號墳, 黃北鳳山郡天德洞
		百濟	
		慶州	飾履塚, 路西里215番地, 瑞鳳冢
		慶南	梁山夫婦塚, 梁山金鳥塚, 固城內山里 28號墳1槨, 昌寧桂城 II地區1號石室, 昌寧桂城 III地區1號石室, 昌寧校洞第7號墳·第12號墳, 普門里夫婦塚
	b	高句麗	
		百濟	
		慶州	金鈴塚, 慶州普門里古墳, 天馬冢
		慶南	
E形 (용문)	高句麗		
	百濟	武寧王陵	
	慶州	皇吾里 第52號墳, 路西里215番地	
	慶南		

여기서 <표 8>를 보면 경주지역에서는 A형에서부터 E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표면문양이 나타나는데 반해 고구려의 경우는 A형과 D형만이 나타나며, 백제는 D형을 제외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남지역은 E형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표면문양은 경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다소 문양이 선별되어지는 지역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뒷장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2. 變遷樣相

가. 年代

삼국시대의 금속제 팔찌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팔찌가 가지는 제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다. 결과 제 속성 중 재질과 표면문양이 시기성과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됨으로 출토고분의 연대를 공반유물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금속제 팔찌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시기 설정은 朴廣春⁴²⁾과 崔秉鉉⁴³⁾의 토기편년표를 참고로 각 고분의 연대를 설정하였다.<표 9> 그리고, 고성 송학동 고분군 1A-4호, 내산리 8호분의 경우 연대설정의 자료가 되는 토기가 한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유공광 구조호가 1점 출토되어 이것이 愼仁珠⁴⁴⁾의 편년안에 대입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편년안을 참고하였다.



42) 朴廣春, 『釜山·金海地域의古墳出土土器의編年的研究(下)』『古代文化』, 1991

박광춘은 부산·김해지역의 고분출토 토기를 7기로 세분하고 각기의 양식의 연대폭을 70년으로 하여 I기는 2세기대, II기는 3세기전엽~3세기중엽, III기는 3세기후엽~4세기전엽, IV기는 4세기중엽~4세기후엽, V기는 5세기전엽~5세기중엽, VI기는 5세기후엽~6세기전엽, VII는 6세기중엽으로 설정하였다.

43) 崔秉鉉, 『新羅古墳研究』一志社, 1992

최병현은 토기의 형식변천과 관련하여 土壙木槨墓 단계를 I·II기로, 積石木槨墳 단계를 I기에서 VI기로 나누었다. 먼저 土壙木槨墓단계 I기는 2세기후반, II기는 3세기~4세기초, 적석목곽분단계 I기는 4세기전반, II기는 4세기후반, III기는 4세기말~5세기초, IV기는 5세기초 이후의 전반기, V기는 5세기후반, VI기는 5세기말~6세기초로 절대연대를 설정하였다.

44) 愼仁珠, 『固城松鶴洞古墳群 第1號墳 發掘調査報告書-有孔廣口小壺 考察』, 東亞大學校博物館, 2005

신인주는 송학동 고분 출토품의 형식과 특징을 다른 유적 출토품과 비교·검토하여 유공광 구조호를 6단계로 세분하였다. Ia는 5세기 전반, Ib는 5세기 3/4~4/4분기, IIb는 5세기 4/4~6세기 1/4분기, IIIb는 6세기 1/4~2/4로 설정하였다.

<표 9> 慶州·慶南地域 팔찌出土 古墳 編年案

地域 時期	慶州地域 (崔秉鉉)		慶南地域 (朴廣春)	
A.D.200				
_____	II기	土 廣 木 槲 墓 段 階	II기	

250				
_____	III기		III기	

300	I기		IV기	

_____	II기		IV기	

400	III기	皇南大塚 北墳	V기	陝川 玉田 82號墳 星州 星山洞 58號墳
_____	IV기	味鄒王陵 C地區3號墳 瑞鳳冢		
450	V기	金冠塚, 天馬冢, 金鈴塚 飾履塚, 路西里 第138號墳 皇吾里 第4號墳, 銀鈴塚	VI기	昌寧桂城 II地區1號墳 陝川 玉田 M2號墳 陝川 玉田 28號墳 陝川 鳳溪里 大形墳 昌原 加音丁洞 3號 固城松鶴洞 1A-4號墳 固城松鶴洞 1A-11號墳 固城 栗垈里 2號墳 3號 梁山 夫婦塚, 古城 內山里

500	X		VII기	昌寧桂城 III地區 1號墳

_____	X		VII기	昌寧桂城 III地區 1號墳

600				

나. 時期性과 地域性

앞장에서는 팔찌의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 재질·제작기법·연결형태·표면문양에 의한 분류를 하였다. 재질은 금제, 은제, 청동제로, 제작기법은 단조와 주조기법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결형태에 따른 분류에서는 끝을 접합시킨 圓形과 缺圓形, 連結形으로 표면문양에 따라서는 소문, 새김문, 톱날문, 돌기문, 용문으로 나누어 보았다.

결과 4가지 요소 중 재질과 표면문양에 시기성과 지역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단락에서는 이들 속성에서 나타나는 시기성과 지역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材質

앞의 <표 1>의 분석에서 재질이 금제인 것은 경주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은제나 청동제는 경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므로 재질에서의 지역성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재질상의 검토여서 이들 재질이 어느 시기부터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팔찌의 재질과 함께 이들 팔찌가 출현한 시기도 함께 검토하여 그것을 동일한 지역축과 시간축상에 나열하여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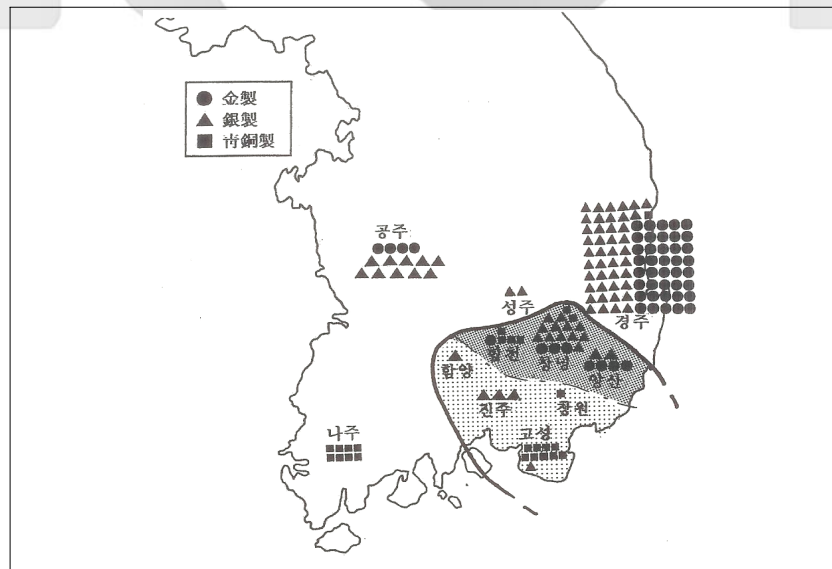
<표 10>에서 팔찌는 1期(4세기 중반) 이후부터 고분에 부장되기 시작하여, 2期를 거쳐 3期(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이르는 동안 금제·은제·청동제

<표 10> 材質과 時期와의 상관관계

	材質	1期		2期		3期		4期	
		4C中半~5C初		5C前半~中半		5C後半~6C前半		6C中半	
고구려 지역	金製								
	銀製			3		5			
	靑銅製		2	3					
백제 지역	金製					2			
	銀製					9			
	靑銅製					7		1	
경주 지역	金製		11	3		26			
	銀製		2	3		41			
	靑銅製		1						
경남 지역	金製					5			
	銀製				3	8			
	靑銅製					14		2	

의 팔찌가 네 지역에서 다양하게 부장되다가, 경주지역에서는 3期(6세기 전반)를 기점으로, 경남지역은 4期(6세기 중반)를 기점으로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팔찌의 출현에 있어서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은 경주 월성로 가-14호분에서 출토된 청동제 팔찌 1점으로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청동제 팔찌가 제작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재질면에서도 익숙한 청동제 팔찌가 먼저 제작되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발견된 수량이 1점에 불과하고, 해당 유구에서 절대연대를 비정할 만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점과 유구의 성격 역시 토광목곽묘인지 적석목곽분인지 확실치 않은 점에서 명확히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경주지역은 이후 I기 후반에서 II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금제와 은제의 팔찌만이 출토되고 있는 사실에서 주변지역인 고구려나 백제, 경남지역보다 일찍이 금·은의 발달된 세공기술과 함께 금·은제 팔찌가 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백제나 경남지역의 경우는 III기에 금제·은제·청동제의 팔찌가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백제나 경남지역은 재질상의 문제만이 아닌 제작기술상의 문제점도 함께 내포할 가능성을 상정된다. 그러므로 경주지역과 달리 재질면이나 시기면에서 모든 것이 늦은 시기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백제나 경남지역의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이유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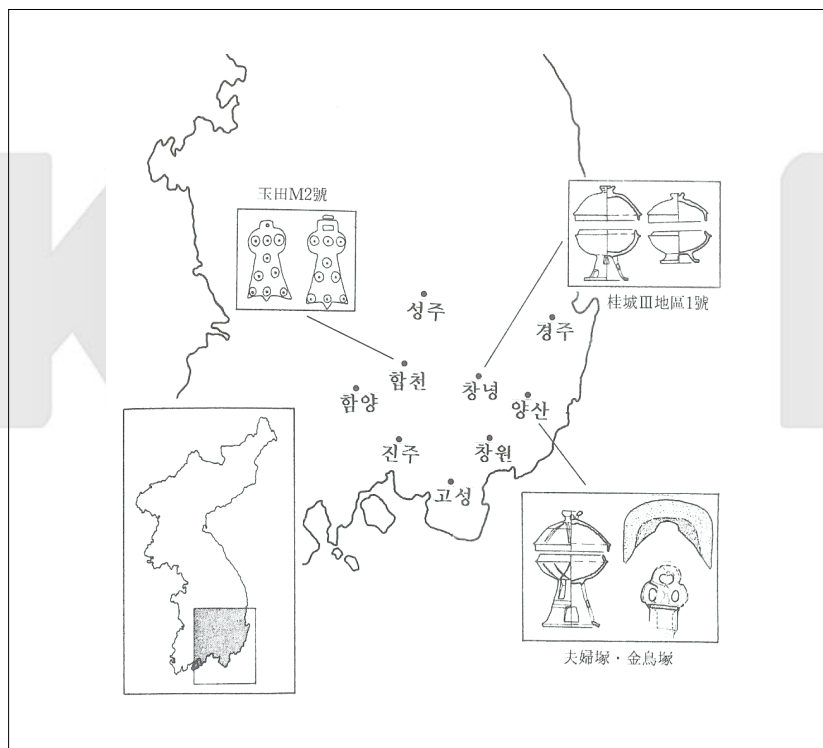
먼저, 재질이 지역성의 반영을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포도를 작성해 보았다.<도면 2>



도면 2. 팔찌의 材質別 分布狀況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경남지역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서안지역인 합천, 진주, 함양, 고성, 창원은 은제와 청동제가 출토되고 있는 반면, 양산과 창녕에서는 은제와 함께 금제가 출토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포양상은 앞의 <표 10>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단순한 지역적 차이만이 아닌 신라와 가야의 정치적·지리적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3>은 지역성이 뚜렷한 신라계 유물을 검토하여 경남지역내 문화권을 파악해보았다. 낙동강 동안에 위치하는 창녕, 양산 그리고 낙동강 서안에 위치하는 합천 M2호분⁴⁵⁾에서 신라계유물이 공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신라계유물이 나타나는 지역에 국한되어 금제팔찌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도면 3. 慶南地域에 나타나는 신라계 유물

45) 합천 옥전M1·M2호 시기는 신라세력이 합천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기로, 신라세력이 어느정도 안정된 시기로 생각된다. 5C 전반대에서 중반을 고구려가 475년 한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끊임없는 공격으로 백제를 괴롭히던 시점이다. 『遣使朝魏上表日(중략) 又云 臣與高句麗 源出夫餘(중략) 凌逼構怨 連禍三十餘年財彈力竭 轉自*跋』 『三國史記』百濟本紀 3 蓋齒王 18年

이로 볼 때 지역성을 가진 유물의 분포가 정치적 영역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정치권역이나 문화권역의 영향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따라서 낙동강 동안에 해당하는 창녕, 양산과 합천 일부지역은 신라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그 외 고성, 진주, 함양, 창원 등은 가야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자한다.

또한 경주, 창녕, 양산, 합천 M2호분에서는 금제·은제팔찌가 나타나고, 고성, 진주, 함양, 창원에서는 청동제와 은제만이 나타나는 분포현상으로 미루어보아 재질에 있어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중앙과, 경주와 가까운 경남지역의 낙동강 동안지역·낙동강 서안지역 사이에는 금제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리고 경남지역에서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Ⅲ기에 경주와 가까운 지역인 창녕이나 양산, 합천에서만 금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금제의 월등한 우위를 보이는 경주지역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Ⅲ기는 신라가 영토확장을 이루는 시기여서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결부된 결과, 낙동강 동안에 해당되어지는 이 지역에서 금제 팔찌가 확인되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3세기대까지 진한 12국 중 1국에 불과하였던 신라는 어느 시점부터 주변의 세력들에 대한 복속을 진행하였고, 4세기 후반에 가까워지면서 낙동강 일대, 경북내륙, 동해안 일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간 것으로 보인다. 즉, 경주의 직접적 보류에 해당하는 창녕, 양산, 합천 등에 금제의 팔찌를 보급하여 그 정치적·지리적 결속을 돈독히 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도면 2>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2) 表面紋樣

다음은 각 유적에서 나타나는 표면문양의 시기적 변천양상을 <표 11>에 작성해보았다.

경주지역은 I기에서부터 소문의 A식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II기에는 A식과 함께 새김문인 B식, 돌기문인 Da식이 함께 나타나며 III기가 되어서는 톱날문인 C식과 돌기문 중 Db식, 그리고 용문인 E식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I기에서부터 III기에 이르기까지 경주지역은 전 시기에 걸쳐 팔찌가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문양에서는 A→B·Da→C·Db·E의 순서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주지역은 시간축 상으로 문양도 변화·발전되는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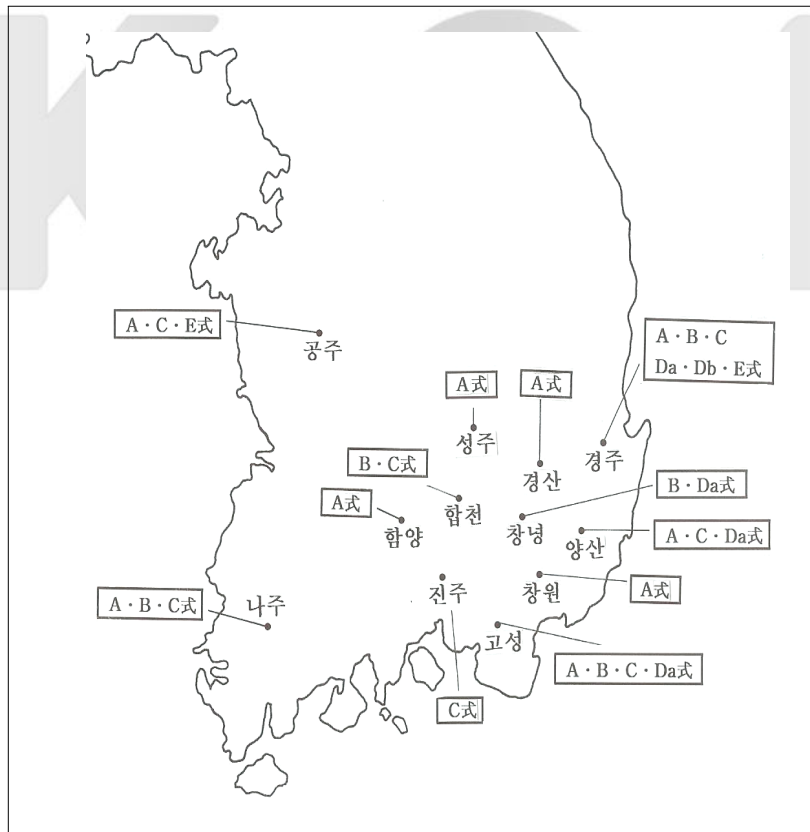
그러나 그 외 지역인 경남지역은 III기에 모든 문양이 함께 나타나며 IV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주지역과 동일하게 III기에 대부분의 팔찌가 단절되는

<표 11> 표면문양의 시기별 변천과정

지역 地域	I 期 4C 中半 ~ 5C 初		II 期 5C 前半 ~ 中半		III 期 5C 後半 ~ 6C 前半		IV 期 6C 中半 ~	비 고	
	1,2	3	4	4	5,8,13	6,7,9,10,13,14	8		11,12
경주									
경산									
성주									
창녕									
양산									
합천									
진주									
함양									
고성									
창원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이것은 경주지역이 시기적인 변화나 발전의 다양화 과정을 거치는데 비해, 경남지역이나 백제는 모든 모양이 일시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발전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지역의 것을 모방하거나 팔찌 그 자체를 유입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양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도면 4>을 작성해 보았다. 여기서도 주목되는 것은 경주지역에서 모든 형식의 문양이 나타나는데 대해 주변지역은 일부 누락된 문양들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이것은 문양에서도 경주지역이 중심이 되어 그 주변에 해당하는 경남지역으로 확대되어 갔음을 추정케하며 그 확대에 있어서도 문양의 일부가 누락되는 것은 경주지역과의 관계를 추정할 때 단지 문양만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팔찌 그 자체가 경남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도면 4. 表面紋樣의 地域別 分布狀況

이상, 팔찌의 속성을 재질, 제작기법, 형태, 표면문양의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 속성의 분류를 통해 보여지는 시기성과 지역성의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그러한 지역성과 시기적 차이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름의 가능성을 상징해 보았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팔찌의 부장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三國時代 金屬製 팔찌의 副葬樣相

여기에서는 앞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팔찌의 부장양상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고분에 부장되는 장신구는 대부분이 威勢品⁴⁶⁾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귀금속이나 보석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러한 귀중품을 착용·소유할 수 있는 계층은 극히 한정되었을 것이다.⁴⁷⁾ 이러한 장신구 중 팔찌는 신체 착장유물로 冠이나 鈔帶에 비해 다소 身分 象徵性은 떨어지나 부장유무에 따라 신분차는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다량의 金屬製 裝身具가 출토되는 古新羅地域에서 장신구의 재질차에 따라 신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⁴⁸⁾에서도 상징해 볼 수 있다.

앞서 III장에서 동시기에 경주, 창녕, 양산, 합천 M2호분(신라문화권)에서는 금제와 은제팔찌가 나타나는 반면, 진주, 함양, 고성, 창원(가야문화권)에서는 은제와 청동제팔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는 어떤 사회적인 규칙이나 신분상의 규제에 의한 현상이라 추측되며, 同時期·同文化圈내에서 재질의 차이는 계층성을 반영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46) 朴普鉉, 『威勢品으로 본 古代社會의 構造』,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47) 李仁淑, 『신라와 가야의 裝身具』 『韓國古代史論叢』3, 1992

48) 李漢祥, 『5-6세기 新羅의 邊境支配方式-裝身具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周景美, 『三國時代 耳飾의 研究-慶州地域 出土 垂下付耳飾을 中心으로-』, 서울 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朴普鉉, 위의 논문, 1995

齊藤忠, 『조선고대문화의 연구』, 1943

堀田啓一, 『冠·垂飾耳飾의 출토した 古墳と大和政權』 『古代研究』49, 1967

安井良三, 『我が國發見の金·銀製垂飾付耳飾-裝身具のセツト關係について試論-』 『思想』 1967

<표 14> 固城 內山里古墳群 遺構·遺物 屬性表

고분	號	묘제	규모(간존) 장×폭-고 (cm)	裝身具類						土器類	鐵器類	馬具類	비고
				팔찌	耳飾	指環	頸飾	冠·冠帽	帶金具				
8 호분	주곽	석곽묘	381×70-75							●		제갈 교구	구슬 방추차
	1곽	석곽묘	290×50-45							●	철부, 철도자		
	2곽	석곽묘	350×70-55		金銅					●	철검, 철도자, 철촉		구슬
	3곽	석곽묘	190×40-50	靑銅			●			●			
	4곽	석곽묘	300×80-?										
	5곽	석곽묘	148×32-46							●			
1 호분	주곽	석곽묘	430×100-80								철촉		
	1곽	석곽묘	330×65-50		金					●	철검, 철촉		구슬
	2곽	석곽묘	260×50-30							●			방추차 구슬
	3곽	석곽묘	260×60-60	靑銅						●			구슬
	4곽	석곽묘	175×45-30							●			
	5곽	석곽묘	135×35-35										
21 호분	1곽	석곽묘	360×65-80							●	철촉, 철검, 철부, 철사 교구, 관정, 대도	등자 제갈	
	2곽	석곽묘	260×60-40							●	철도자		구슬
	3곽	석곽묘	193×40-50							●			
	4곽	석곽묘	165×40-40							●	철도자		구슬
	5곽	석곽묘	185×55-40							●			
	6곽	석곽묘	300×60-70							●	철도자		구슬 방추차
	7곽	석곽묘	305×55-40	미보고	金					●			구슬 방추차
	8곽	석곽묘	375×85-40							●		제갈	구슬
	9곽	석곽묘	190×47-20										
	10곽	석곽묘	184×50-40							●	철촉		
	11곽	석곽묘	397×70-45	靑銅						●	철도자		구슬
	12곽	옹관	52×43-22							●			
	13곽	석곽묘	125×45-55										
	14곽	목곽묘	235×55-25							●			
	15곽	석곽묘	200×45-70							●			
28 호분	1곽	석곽묘	426×67-75	銀						●	철도자	등자 제갈 행엽 교구	구슬
	2곽	석곽묘	510×84-20							●	철부, 철촉, 철검	제갈	구슬
34 호분	주곽	석실묘	52×245-160		金					●	격쇠, 철촉, 철부, 철모, 대도, 철도자, 물미, 철 산, 관정	운주 등자 안교	구슬
	1곽	석곽묘	230×50-50	靑銅						●	철도자		구슬
	2곽	석곽묘	185×36-45							●	철도자		
	3곽	석곽묘	255×60-?										
	4곽	석곽묘	285×55-60							●			
	5곽	석곽묘	245×65-40							●	격쇠, 철도자		

<표 15> 固城 松鶴洞(1A號墳)古墳群 遺構・遺物 屬性表

유구	묘제	규모(잔존)	裝身具類						土器類	鐵器類	馬具類	비고
		장×폭-고 (cm)	팔찌	耳飾	指環	頸飾	冠・冠帽	帶金具				
1호	석곽묘	825×105-115							●	대도, 소도자, 철촉, 철부, 철모, 물미, 철차, 철검, 격쇠	교구, 철제등자, 행엽, 재갈, 운주, 마령, 갑주,	구슬
2호	석곽묘	460×80-85				●			●	소도자, 철검, 격쇠, 철부		구슬
3호	석곽묘	220×56-70		金	●				●			구슬
4호	석곽묘	290×60-85	靑銅	金	●				●	격쇠		구슬
5호	석곽묘	265×80-85							●	철탁, 격쇠		구슬
6호	석곽묘	620×75-100							●	소도자, 격쇠	행엽, 교구, 혁금구, 재갈	방추차 구슬
7호	석곽묘	310×50-100							●	철촉덩이, 철부, 격쇠		구슬
8호	석곽묘	440×90-75									재갈, 철검	방추차 구슬
9호	석곽묘	470×75-80	靑銅	金	●				●	철부, 격쇠		구슬
10호	석곽묘	270×60-40							●	철부, 철검, 격쇠		구슬
11호	석곽묘	490×80-95	靑銅	金	●				●	소도자, 철부, 철검, 격쇠, 이형결기	재갈	방추차 구슬

표 16. 昌原 加音丁洞古墳群 遺構・遺物 屬性表

유구	묘제	규모(잔존)	裝身具類						土器類	鐵器類	馬具類	비고
		장×폭-고 (cm)	팔찌	耳飾	指環	頸飾	冠・冠帽	帶金具				
1호	석실묘	345×128-118		金銅					●	철촉, 철도자, 철준,		방추차
2호	석실묘	254×208-93							●	철도자		
3호	석실묘	257×183-150	靑銅	金銅					●	관정, 띠고리, 철도자, 철검, 鐵鏃, 鐵鏃		

표 17. 固城 栗垈里(2號墳)古墳群 遺構・遺物 屬性表

유구	묘제	규모(잔존)	裝身具類						土器類	鐵器類	馬具類	비고
		장×폭-고 (cm)	팔찌	耳飾	指環	頸飾	冠・冠帽	帶金具				
1호	석곽묘	530×110-75							●	창, 철촉,		
2호	석곽묘	385×70-?							●	창, 물미, 낫, 파비, 격쇠	재갈, 등자	
3호	석곽묘	(殘)50.5×?-45	靑銅	金					●	도자		구슬
4호	석곽묘	?		金								구슬 방추차
5호	석곽묘	?										

유구의 규모를 파악해 본 결과, 유구의 규모와의 상관없이 팔찌가 출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 지역은 경주를 중심한 지역과는 달리 부장품에 있어서 분화된 규제가 없었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은제와 청동제 팔찌가 출토되는 동일 지역의 동시기 고분들에 대해 계층성의 반영을 검토해 본 결과, 같은 고분 내에서 은제, 청동제가 출토된 예로 고성 내산리 고분군의 경우가 있는데<표 14> 여기서 팔찌가 출토된 5기의 고분 중 유일하게 은제가 출토된 28호분 1곽만이 등자·재갈·행엽·교구와 같은 마구류를 가지면서 석곽의 크기도 비교적 큰 것이어서 팔찌를 소유함에 있어서 큰 규제는 없었으나, 재질에 있어서는 고분내에서 계층차가 존재하였음이 추측된다.

V. 三國時代 慶南地域 古墳出土 팔찌의 性格

신라의 중심지역인 경주와 그 주변인 경남지역(성주, 창녕, 양산, 합천, 창원, 고성, 진주, 함양)에서 출토된 팔찌의 특징을 시기성, 지역성, 계층성으로 나누어 파악해보았다. 이 장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금공품에 있어 논의가 되어 오고 있는 **분여설**⁴⁹⁾과 **지역모방제작설**⁵⁰⁾에 비추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면 경남지역에서 출토된 팔찌가 부장품으로써 가지는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금공품의 제작은 토기보다 발전된 기술과 경험 등이 요구됨으로 그 재질이나 용도면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으며, 그 수요도 한정된 것인만큼 제작공방도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을 것이다. 즉, 삼국시대 장신구의 제작에는 금과 같은 귀금속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 공방과 장인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제한되고 희소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 재료의 공급이나 제

49) 최중규, 『중기고분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고찰』 『부대사학』7, 1983

近藤義郎, 『古墳發生をめぐる諸問題』 『日本の考古學』V, 古墳時代 下, 1980

『分與論』이라는 것은 일본의 고분시대에 남자의 수장권 계승, 前方後圓墳의 전국적 묘제 통일을 전제로 하고 전기 고분의 부장품 가운데 漢鏡과 魏晉鏡이 공존하고 있는데서 착안된 일본 고분시대의 지배적 이론이다. 즉, 漢鏡을 傳世鏡, 魏晉鏡을 同范鏡으로 파악하면서 鏡의 傳世는 세습적인 수장 지위의 외적 승인에 연유하며 세습적인 수장 지위의 외적 승인에 대한 물적 증거로 中國製 三角緣神獸鏡의 同范鏡分有關係에서 찾고 있는데서 나온 논리이다.

50) 박보현, 『수지형입화식관의 계보』 『영남고고학』4

_____, 『낙동강동안지역 고총고분의 지역성』, 『향토문화』5

작면에서 토기와는 달리 공급과 제작, 그리고 수요의 기능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⁵¹⁾

팔찌의 속성을 통해 본 분석 결과, 경남지역의 팔찌는 모든 속성의 출현이나 구성이 시기적으로 경주보다 늦게 나타나며, 그 전개에 있어서도 시기차이를 두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경주지역과는 달리 경남지역에서는 변화양상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발전적 변화단계가 아닌 유입이나 모방제작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형태나 문양의 패턴은 경주지역과 동일하나 경남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제팔찌의 경우<도판 21, 22, 26, 28> 연결방법에서 나타나는 양 끝단의 처리와 표면에 나타나는 포흔과 금속선의 흔적 등은 제작기술에 있어서의 차이로 보인다. 이것은 곧 경남지역 청동제 팔찌가 경주지역의 금제나 은제팔찌를 모방하여 재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청동제팔찌가 경주에서는 이미 I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반해 경남지역에서는 III기에 이르러 나타나 지속되고 있어, 경주지역과는 시기적으로도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신라적 성격이 강한 유물이 공반되는 경주와 인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팔찌에 대해서는 경주에서 분여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경주지역에서 제작되는 금제와 은제팔찌 중 II기의 단계에서는 은제만을 경남지역으로 확산시키던 신라가 III기인 6세기대에 이르면 경주와 인접한 경남의 창녕, 양산, 합천 등의 지역에 금제를 분여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이를 통해 인식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것은 다른 장신구와의 관계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즉 경주지역에서 금제팔찌가 출토된 고분에서는 금제관-금제과대-금제요패가 세트로 나타나지만, 은제팔찌가 출토된 고분에서는 위와같은 유물의 조합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일부 나타나도 금제가 아닌 은제나 금동제의 관이나 과대가 나타나 재질이 뚜렷한 계층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남지역인 양산이나 창녕의 경우, 금제팔찌와 함께 은제 또는 금동제 관·은제과대·요패·수피제관식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양산과 창녕의 경우 관·관모·과대와 같은 장신구는 중앙의 통제에 의해 은제나 금동제를 갖추지만, 팔찌는 엄격한 통제에서 제외되었다던지 교류 등으로 최상층에 의해 금제팔찌를 수여 또는 하사받은 것으로 추측해보고자 한다.

51) 李仁淑, 「신라와 가야의 장신구」 『韓國古代史論叢』3, 韓國古代史研究所 編, 1992

그 외(고성, 진주, 창원, 함양)지역에의 장신구 출토현황을 살펴보면 5세기 중반부터 이식, 팔찌 등의 각종 장신구가 부장되기 시작하는데 이식의 경우는 각 유구마다 출토되는 빈도가 높은 반면, 팔찌의 경우, 출토되는 고분도 적을 뿐 아니라 그 숫자도 적어서 고분내에 선택적으로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주지역에서는 팔찌가 상위계층에 주로 부장되었으나 경남지역에서는 유구의 규모와 유물의 양과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엄격한 규제는 없었던 듯 하다.

VI.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금속제 팔찌를 통해서 경남지역 팔찌의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경주지역과 그 주변의 경남지역 간의 정치적·문화적 현상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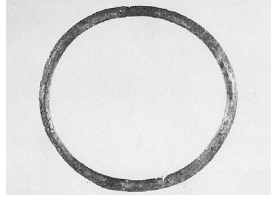
먼저 팔찌의 속성은 재질, 제작기법, 연결·단면형태, 표면문양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이들 팔찌의 변천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성을 분석하여 연대의 추정과 시기성과 지역성을 검토하였다. 재질은 크게 금제, 은제, 청동제의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신라의 중심지역인 경주지역에서는 이른 시기에 청동제 팔찌의 제작을 종식하고 금제나 은제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남지역은 III기(5세기후반~6세기전반)가 되어 금제, 은제, 청동제 팔찌가 나타나며 금제는 경주와 가까운 창녕이나 양산, 합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 시기는 신라가 영토확장을 이루는 시기로서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낙동강 동안에 해당되어지는 이 지역들에서 금제팔찌가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시기·동문화권 내에서 재질의 차이가 계층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경주지역에서는 금제의 관·관모·과대·요패를 가지는 최상층이 금제팔찌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며, 은제나 금동제의 관·관모 또는 과대, 요패를 소유하는 한 단계 아래 계층이 은제팔찌를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남지역의 양산이나 창녕, 합천 지역은 관·관모·대금구·요패 등은 중앙으로부터의 엄격한 규제에 의해 은제나 금동제를 갖추게 되지만, 팔찌나 이식과 같은 장신구는 다소 엄격한 통제에서 제외되어 금제팔찌를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문양에서는 A(소문)→B(새김문)·Da(돌기문)→C(툽날문)·Db(돌기문+옥)·E(용문)의 단계로 변화해 간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툽날문에서 돌

기문으로 변화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상반되는 견해이다. 표면문양은 경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문양이 선택되어지는 지역성을 보여 이러한 양상은 경주지역이 중심이 되어 그 주변의 경남지역으로 팔찌가 확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금공품에 있어 논의되어 오고 있는 분여설과 지역모방 제작설에 비추어 경남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금속제 팔찌의 제작지 문제를 추정해 보았다. 경남지역의 금속제 팔찌는 경주지역에 비해 모든 속성의 출현이나 구성이 시기적으로 늦으며, 그 전개에 있어서도 시기차이를 두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경주지역과 달리 일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발전적 변화단계가 아닌 유입이나 모방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남지역 청동제 팔찌의 경우, 경주지역의 금제·은제팔찌와 동일한 형태·문양패턴이 확인되고 육안으로도 제작기술의 미흡함 등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현상도 경남지역의 청동제 팔찌가 경주지역의 금제·은제팔찌를 모방하여 재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경주와 인접한 창녕, 양산, 합천지역에서 확인되는 신라적 성격이 강한 유물과 공반된 금제팔찌는 경주에서 분여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신라가 III기인 5세기 후반에서 6세기대에는 경주와 인접한 지역인 경남의 창녕, 양산, 합천의 지역에 금제를 분여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금속제 팔찌의 분석을 통하여 경남지역 팔찌의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경주지역과의 관련성, 즉 신라와 가야의 정치적·문화적 현상을 밝히는 데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제작기법의 분석에 있어서 실물을 직접 관찰하고 조사해야 하나, 대부분 도판과 도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삼국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채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것이 큰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이 점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발견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앞으로의 검토에서 보완코자 한다.



圖版 2. 慶州月城路
가-14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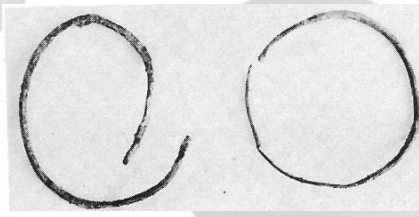
圖版 3. 慶山林堂7A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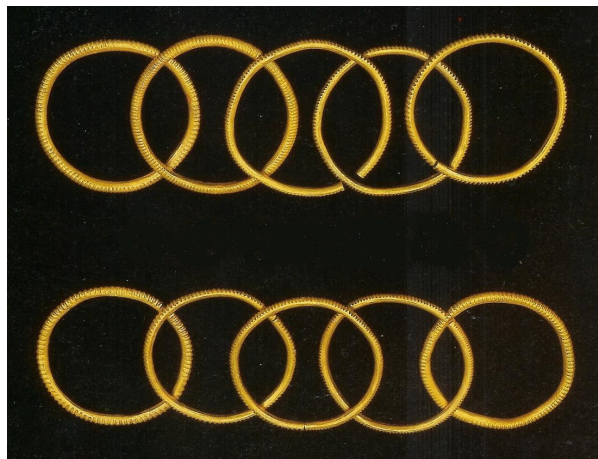
圖版 4-1. 皇南大塚 北墳



圖版 4-2. 皇南大塚 北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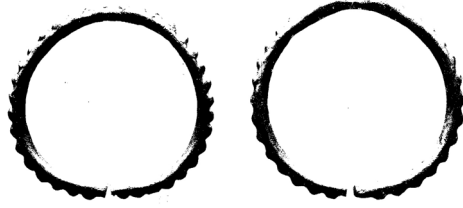
圖版 5. 味鄒王陵前地域C地區第3號墳



圖版 6. 金冠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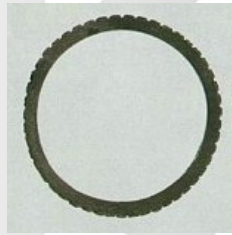
圖版 7. 天馬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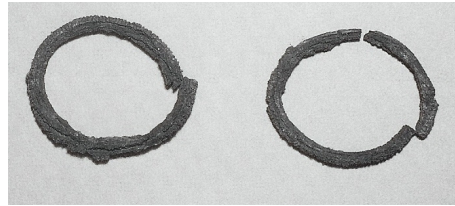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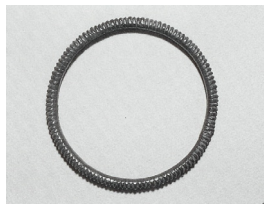
圖版 8. 壺衿塚



圖版 9. 慶州路西里215蕃地 (左)은제 팔찌/ (右)龍紋금제 팔찌



圖版 10. 瑞鳳冢 (左)은제 팔찌/ (右)금제 팔찌



圖版 11. 慶州路東里4號墳 (左)금동제 팔찌/ (右)은제 팔찌



圖版 12. 晉州 中安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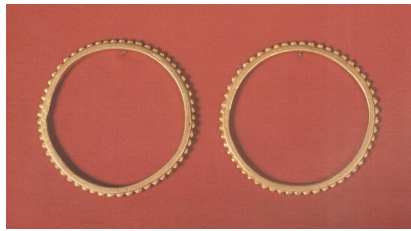
圖版 13. 陝川玉田M2號墳



圖版 14. 陝川玉田28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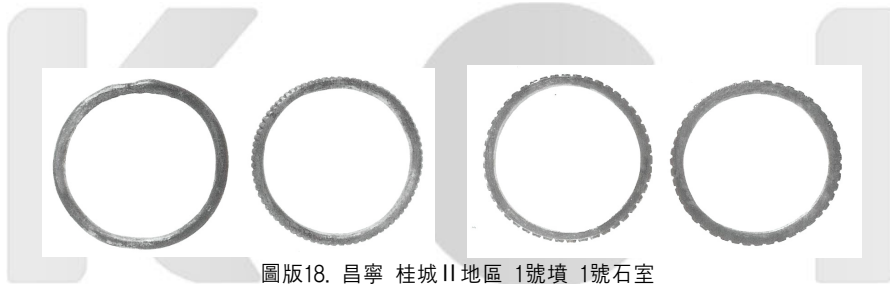
圖版 15. 星州 星山洞 第58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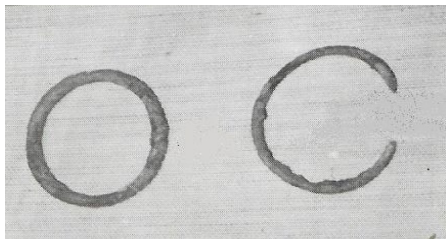
圖版 16. 梁山 金鳥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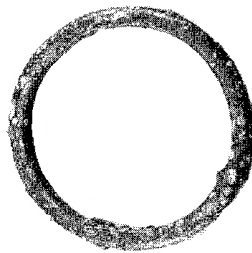
圖版 17. 咸陽 白川里 第5號墳



圖版18. 昌寧 桂城II地區 1號墳 1號石室



圖版19. 陝川 鳳溪里 古墳群



圖版20. 昌原 加音丁洞 第3號墳



圖版21. 固城內山里古墳
1號墳 3槨



圖版22. 固城內山里古墳
34號墳 1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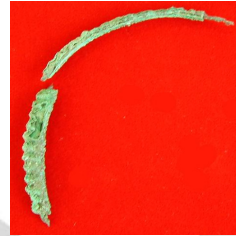
圖版23. 固城內山里古墳
28號墳 1槨



圖版24. 固城內山里古墳
21號墳 11槨



圖版25. 固城內山里古墳
8號墳3槨



圖版26. 固城松鶴洞古墳
1A-4號墳



圖版27. 固城松鶴洞古墳
1A-9號墳



圖版28. 固城松鶴洞古墳 1A-11號墳



圖版29. 固城 栗垵里 2號墳



圖版30. 昌寧桂城III地區1號墳